장경률칼럼문집

세태잡론

연변인민출판사

세태잡론

장경률칼럼문집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리명근
책임교정: 김홍화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张京律新闻政论文集：朝鲜文 / 张京律著. —延吉：延边人民出版社，2008.5
ISBN 978-7-5449-0307-3

Ⅰ.张… Ⅱ.张… Ⅲ.新闻-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Ⅳ.I253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8）第073481号

张京律新闻政论文集

出版：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延边星月印刷有限公司
发行：延边人民出版社
开本：880×1230 1/32 印张：15.5 字数：380千字
标准书号：ISBN 978-7-5449-0307-3 （民文）
版次：2008年5月第1版 2008年5月第1次印刷
印数：560册 定价：28.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影响阅读，请与印刷厂联系调换。

하고싶은 말

—서문을 대신하여

《신문칼럼문집》이라고 한권 묶어본다. 원 연변일보 부주필이였던 장정일선생(당시 리론편집)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첫 신문정론기사를 발표하여서부터 35년만이다. 더구나 직업언론인으로 되면서 본격적으로 신문정론기사 무려 650여편을 발표하였지만 거지반 쭉정이농사라 영근것이 얼마되지 않는다. 낯이 뜨거운대로 고르고 또 골라 겨우 250편 정도 선정하였지만 그나마 속이 꽉 찬것도 그 수가 가소롭다.

21세기를 맞은 작금은 지식정보화시대로서 순식간에도 천변만화하는지라 인간세태도 천차만별이다. 하찮은 필부건만 이런 격변기를 사는 긍지감에서 제딴에는 정론(正论)을 펴느라고 기를 썼지만 결국은 기자생애 27년에 보고 듣고 절감한것을 단평적으로 일사일언한 갈팡질팡 잡론에 그치고말았다. 그래서 《세태잡론》이라고 이름을 달았다. 하지만 타작이 그닥잖은 글농사여도 나의 인생 전반부의 전부나 다름이 없다. 인젠 "지천명"도 이윽한지라 제2인생의 징검돌이라도 되겠는지. 그래서 과분한 평가는 바라지 않고 그런대로 내놓았는바 자기 인생의 단계적총화를 지은것이라고 인정해주면 족하다.

얼마전에 신문작품집을 내였다. 뒤이어 한해에 이 칼럼집까지 두권이나 펴내자고 하니 작품은 그런대로 묶었지만 주머니사정만

은 여의치 않은것은 사실이였다. 하지만 제 친족들과 사회상의 많은 지기들의 도움으로 이처럼 해볕을 보게 되였다. 고두백배하고 감사를 드리는바이다.

—저자로부터
2008년 5월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

차례

하고싶은 말[서문을 대신하여]➡1

제1장 가로 보고 세로 보고[시정칼럼]

쥐, 고양이 그리고 닭➡3
젖떼기➡6
옥돌을 막돌로 쓰는 격?➡8
국제공민의 선결조건 ➡10
7천만 동포의 한결같은 기대 — 남북정상회담➡12
"월요일병"➡16
말 단 집에 장이 쓰다➡18
짧은것이 좋다➡20
꾸어다놓은 보리자루?➡22
공과(功过)의 변증원리➡24
록색의 부름 — 록색올림픽에 대하여➡27
과학기술강국선언서 — 과학기술올림픽에 대하여➡29
인문정신의 대고양 — 인문올림픽에 대하여➡31

응급은 침착하게 처리는 단호하게➡33
승낙, 신용 그리고…➡35
연설고를 떠날수 없나?➡38
이슬에서 태양을 본다➡40
록색, 영원한 주제➡42
점, 선, 면의 3위1체➡44
3푼건설 7푼관리➡46
"연변정신" 왜 절실한가?➡48
현대영웅은 로력모범➡52
"녀인천하" 도래하는가➡54
폭로와 해별 골고루➡56

제2장 민초잡론[세태칼럼]

귀의 기능에 대한 생각➡61
가로 보고 세로 보고➡63
"군중리익도모"의 리면➡66
"작은 관리"의 몰렴치한 반응 ➡68
"한끼니 밥"간부➡70
눅거리찬양➡72
"편제외"가 되더라도➡74
"고무줄기능" 단상➡76
녀성참정에 대한 약간한 사고➡78
절찬인가 오해 말라➡81
대자연속으로 농촌으로➡83
리익분배관계재배치➡85
버릴것이란 없다➡87

"114일" 무얼 뜻하나➡89
앵무새가 아니건만➡91
만장일치?➡93
자리다툼 및 기타➡96
현대판 "당팔고"➡99
명인허실담➡102
민중의 힘➡105
이런 "명인" 스톱!➡107

제3장 소금은 영원히 썩지 않는다[림정칼럼]

웃물과 아래물➡111
"먼저 주는" 리면➡113
"내가 말하더라고 하오"를 두고➡115
감출소냐 드러낼소냐?➡117
장식품은 아니건만➡119
메돼지도 가짜를 알아➡121
지정좌석앉기➡123
재수없이 걸린 죄?➡127
림기응변술의 묘리➡129
꼭두각시놀음 인젠 그만➡131
은형회뢰 ABC➡133
낚는자와 낚이는자➡135
"권력자본화"와 그 배후➡138
생명의 높이➡140
"벼락맞은 소고기"라?!➡142
문전성시 무얼 뜻하나?➡144

제4장 토대는 반석같이[경제만필]

실패, 일종의 특수한 재부➡149
병귀신속➡152
자연환경 소득화➡154
규칙부터 배우자➡156
혜안을 갖추라➡158
메기효과➡160
족벌경영의 후과는 패망➡162
악덕상은 단호하게 족쳐라➡164
작은것에도 집착하라➡167
저력을 보라➡169
빛오염—새로운 오염원➡171
집체기업재산권문제➡173
변신에 능해야 번다➡175
결책착오책임도 물어라➡177
"왕행복현상" 무얼 의미하나➡179
렴가로력 더는 우세가 아니다➡181
얼굼도 자원➡183
"싸구려명표"도 명표?➡185
건축물의 단명현상➡187
"부자되는 기본권리" 법제화 ➡189
가장 우리적인것으로➡192
우리 특유의 음식문화 창출하자➡194
백성시각에서 물가 잡아라➡196

제5장 오염없는 생태락원[향촌화제]

"수토불복증"➡201
농민들의 두려움은 구경 무엇?➡203
사라지는것 살리자!➡205
유기농법 제창하는 리유➡207
록색락원 지켜내자➡209
경작지를 보호하자➡211
토양오염 심각하다➡213
숭늉일화➡215
쌀은 곧 생명➡217
"안심환"➡219
장수마을 건설하자➡221
삶의 터전 망가진다➡223
"새 농촌 건설"의 진정한 의미➡225
농업산업화 과연 무엇이 문제?➡227
오염없는 생태락원으로➡230
높이 서서 멀리 내다보시라➡232
기다림과 의뢰는 안될 말!➡234
적지적종이 기본➡236
이주민은 뿌리박았는데➡238
"남의 불에 게잡기"는 불가➡240
역발상정신 고양하자➡242
농경문화전통 살리자➡244
온돌에서 무릎맞대고➡246

제6장 항상 따스한 인간세상[사회칼럼]

"빚"이 많으면 손발이 얽매인다➡251
까마귀송➡253
"목을 빼여든 오리"?➡256
지는것이 이기는것➡258
조선족은 동포이자 중국공민➡261
중년의 곤혹➡265
편견은 버려라➡267
주는만큼 돌려받는다➡269
사소한 사건이 주는 사색➡271
작은것도 아름답다➡274
오포정신➡276
자살방지 및 그 의미➡278
나눌수록 커지나니➡281
비령뱅이? 아니도다!➡283
이웃사촌때가 그립다➡285
베풀면 장수한다➡287
뿌린만큼 거둔다➡289
번개혼인단상➡291
설명절문화 무얼 고양할가?➡293
편견은 금물➡296
불효벌금령수증➡298
베푸는 삶 아름답다➡300
고령화대비산업 흥기 요청➡302
자세 낮추면 길이 트인다➡304
선행자는 바라는것이 없다➡306
아직도 매맞고계십니까?➡308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

현대판 "담치기"➡310
행복은 자기 스스로➡312
고마움 항상 간직하라➡314

제7장 "인생식자우환시"라 하건만…[학습칼럼]

소는 열두번 새김질한다는데➡319
배움에 늦음을 탓해서야➡321
책을 볼 때 두눈으로➡323
맑스의 발자취➡325
"변"과 "불변"➡327
수치스러운 앞자리➡330
지상의 명령—배우고 또 배우라➡332
소, 말, 당나귀의 총칭은 가축➡335
룡정차의 귀띔➡338
"지름길"이란 없다➡340
책코너 보급하자➡343
독서열이 기대된다➡345
하루 두번 새벽 없나니➡347
가져오되 골라쓰자➡349
지식로동자로 거듭나자➡352
온고이지신➡355
독서는 고역, 하지만 즐거워➡357
공부하라, 늙지 않는다➡359
독서삼도 ➡361
독서절소감➡363

제8장 내가 나의 등불[수양칼럼]

"사냥군이 여우가 '쏜' 총에➡367
맞은 일"로부터➡367
"모수 자기추천"송➡369
로반의 문전에서 도끼를 휘두르라➡371
공산당원의 령혼이란!➡373
가자 지구촌의 그 어데나➡375
꽃은 질 때도 아름다와➡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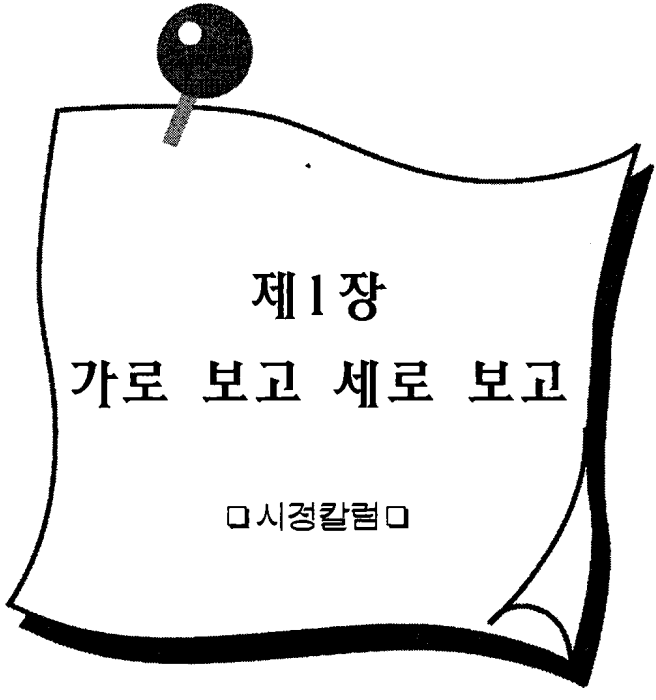
제9장 자녀사랑교실[교육칼럼]

"어린이성인병?"➡383
아버지도 명태고기 즐긴다➡385
체벌은 훈육교육에서의 금물➡388
어릴 때부터 고생시키라 ➡391
요즘 어린애들 말이 거칠다➡393
딱친구를 갖게 하라➡395
아이는 아이다와야 한다➡398
련휴일은 아이들과 함께➡401
아이가 진정 만족하는가➡403
아이들에 대한 아침밥관리➡405
감독관?…인젠 그만둠이 상책➡407
긴장하되 맞춤하게➡409
좌절도 교육의 하나➡411
점수에 대한 쟁명➡414
책임의식 심어주라➡417

엉뚱한 생각은 칭찬해주라➡420
바른 생활도 조기교육으로➡423
숲속으로, 호수가로➡425
오염없는 정토로➡427
아이들을 구하자➡429
애들에게 유치함 찾아주자➡431
"생명방호복" 항상 갖추도록➡434

제10장 망가지면 보상없다[건강칼럼]

"아침식사는 반드시 드셔야 해요"➡439
낚시를 즐겨라➡442
인생의 두번째 봄을 맞자➡445
낚시—세계성대중스포츠➡448
에이즈예방, 남성의 미룰수 없는 ➡451
사회적책임➡451
몸은 거칠게 굴라➡453
경영하려면 건강이 밑천➡457
경추병, 사무족을 좀 먹는다➡459
우리 쌀밥—건강식➡462
건강의 적신호—육체통증➡464
가을강—낚시군을 부른다➡466
남성갱년기불청객—견주염➡468
강도조절·절주있게·규칙적으로➡471
중년건강 이렇게 챙겨라➡473
미증유의 도전➡476
스포츠—기본권리의 하나➡479
한잔만 남기라➡481



제1장
가로 보고 세로 보고

□시정칼럼□

정치란 올바른것이다. 그대가 솔선하여 올바르게 한다면 누가 감히 올바르게 하지 않을것인가.

—공자—

쥐, 고양이 그리고 닭

쥐란 놈은 원래 "4해"에서도 첫손 꼽히는 나쁜 놈이라 그놈을 잡아먹는 고양이와 필연적인 련관이 있다 할수 있다. 헌데 여기에 닭까지 끼여든다면 어쩐지 어색한감이 난다. 그러나 정작 아래의 이야기를 듣고나면 그 리유도 터득될것이다.

명나라사람 류기가 쓴《울리자》란 책에는 "조나라사람의 쥐피해"란 우화 한편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조나라사람이 쥐피해를 몹시 입게 되자 중산국에 가서 고양이를 얻어왔다. 헌데 그 고양이는 쥐를 잘 잡을뿐더러 닭잡이도 잘하였다. 달포가 지나 쥐가 깡그리 없어지자 닭도 없어졌다는것이다.

가석한 일이다. 신고스럽게 고양이를 얻어와 쥐를 없앴건만 닭까지 멸종했으니 말이다. 실제상 이것도 괴상한 일이 아니다. 고양이가 육식동물이니 할수 없지 않는가.

어찌할것인가? 조나라사람의 아들은 골머리를 앓던 끝에 고양이를 쫓아버리자고 하였다.

그러나 조나라사람은 아들에게 이런 도리를 깨우쳐주었다. "우리 집에선 쥐피해를 입은것이지 닭이 없어 걱정인것은 아니다. 그놈의 쥐들이 잔뜩 깨나는 바람에 쌀이 심히 축나고 옷이나 가장집물이 거덜이 나고 구들과 천정이 벌집처럼 되였거늘 그 피해야말로 막심했었지."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